

로봇이 전기차 충전·주차… 현대차그룹, 새로운 일상 공유

로봇 등 체험·시연 중심 전시
연구환경 구현 '테크랩' 눈길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CES2026에서 선보인 위 부품을 분류하는 휴머니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 등 인공지능(AI) 로봇틱스 생태계를 선도할 핵심 제품 및 연계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는 CES2026 기간 동안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웨스트홀 내에 1836㎡ 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그룹 AI 로봇틱스 기술 개발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차세대 아틀라스, 스팟, 모베드 등 실물 로봇 전시와 함께 고객의 일상과 근무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나리오를 제시하며,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상을 체험·시연 중심 전시로 구현했다.

AI 로봇틱스 연구 환경을 전시 공간으로 구현한 '테크랩'에서는 휴머니이드 로봇인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이 한쪽 선반에 있는 부품을 집어 반대쪽 선반으로 옮겨 분류하는

시연을 확인할 수 있다.

보스턴다이나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은 AI 기반 이상 징후 감지 등의 기능을 갖춘 오르빗 AI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설비를 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AI 로봇틱스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됐다. 차



자율 충전 로봇 활용한 아이오닉5 로보택시 충전 시연 모습. /현대차그룹

세대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의 상용화 모델은 상단에 배송·물류 등이 가능하도록 탑 모듈을 장착하고 전시장을 누빈다.

전기차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개발된 로보택시도 함께 공개됐다.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는 현대차그룹과 모셔널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

용됐으며, 이는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운전자가 필요 없는 고도 자율주행) 수준이다. 레벨 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 시에도 운전자가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 물류 상하차 로봇 '스트레치'를 비롯해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 '협동로봇' '자행물류 로봇' 등도 선보인다.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은 방수·방진 설계로 비나 눈과 같은 악천후와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기온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야외에 설치된 충전소에서도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차로봇은 최대 3.4t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 NOVA, 온바이브 등 'AI 퍼스트 비즈니스' 박차

시장 문제해결 통해 독립사업 확장
헬스테크 등 글로벌 스타트업 협력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이하 LG NOVA)가 CES 2026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인공지능(AI)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LG NOVA는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6에서 'AI 기반 혁신 선도'를 주제로 유레카 파크에 전시관을 꾸렸다고 7일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LG NOVA는 업계 선도하는 혁신 스타트업과 협력을 통해 LG전자의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말 신설된 조직이다.

LG NOVA는 ▲AI ▲헬스테크 ▲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 'AI 기반 혁신 선도'를 주제로 마련된 LG전자 북미이노베이션센터(LG NOVA) 부스. /LG전자

클린테크 등 미래 산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11곳과 함께 전시관을 꾸렸다. LG NOVA가 인큐베이팅해 독립법인으로 배출한 회사들도 함께했다. 이들 스타트업에게 LG NOVA와 CES에 참가하는 것은 미래 고객과 투자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LG NOVA는 CES 전시에서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AI 퍼스트 비즈니스'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첫 공개한 '온바이브'는 LG NOVA가 발굴한 AI 퍼스트 사업 후보로, LG NOVA의 인큐베이팅을 거쳐 독립법인으로 출격을 앞두고 있다. 온바이브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능형 SNS 마케팅 플랫폼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활용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리뷰, 게시, 성과 측정까지 전 과정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제한된 자원으로 디지털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LG NOVA는 2024년 첫 스피어아웃 성과로 헬스케어 독립법인 '프라임포커스 헬스'를 배출했다. 지난해는 AI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파도 AI 오케스트레이션(이하 파도 AI)'과 AI 기반 진단 기술로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플랫폼 '딜리프 AI'를 독립법인으로 배출했다.

LG NOVA는 헬스테크, 클린테크, AI 등 미래 산업 영역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한다. 이들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피어아웃을 통해 신규 사업모델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노바콘(NOVACon·LG NOVA 출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미이노베이션센터장 이석우 부사장은 "이번 전시에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함께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LG NOVA의 비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중, 美 해군 MRO 사업 추가수주

'USNS 세사르 차베즈'함 정비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세사르 차베즈(Cesar Chavez)'함의 정기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세사르 차베즈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12년 취역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9일부터 울산 중형선사업부 인근 안벽에서 정비를 시작해 선체 및 구조물, 추진, 전기, 보조기 계통 등 100여 개 항목에 대한 정밀 정비를 수행한 뒤 오는 3월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미 해군으로부터 처음 수주한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MRO를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해당 함정은 지난 6일 출항했다고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최초 계약 당시 60여 개 항목에 대한 작업을 요청받았으나, 정비 과정에서 100여 개 항목이 추가로 발굴되면서 정비 기간이 늘고 계약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HD현대중공업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대응으로 MRO 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함정·중형선사업부 대표)은 "독보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첫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함정·중형선사업부 발족 이후 내실과 효율을 강화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chale@

LG엔솔, ESS·LFP배터리 생태계 활성화

전기안전공사 MOU… 안전성 강화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기안전공사(ESS) 안전성 강화와 국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김동명 최고경영자(CEO) 사장과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S 안전 강화 및 국내 LF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ESS 설비 안전 관리 정책 지원 ▲기간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오른쪽)과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의 ESS용 LFP 배터리가 적용되는 신규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점검·검사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 관리 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공항 라운지 서비스 강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이전을 앞두고 고객들의 라운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7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해 2023년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라운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리뉴얼 및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통합 항공사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최상의 라운지 시설을 선보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T2 라운지 증설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안정적인 통합과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빠르게 증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